

인생 자체가 절실한 수행이어야

천룡 스님의 가르침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양측에서 종교에서 벗어나든지 모두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민족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알라라는 민족신을 믿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민족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에 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드라의 그물 속에서 연기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연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산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노예가 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연따라 생겨났다 사라질 뿐인데 잘못된 종교관이 고정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은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화나 협상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순수한 마음을 잃고 삼독(三毒)으로 자아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나 협상을 하다 잘못 빠듯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를 표피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더 한 차원 높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 본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내 입장만 고집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메아리는 소리로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메아리가 오는데 소리로 그치려 하면 메아리는 자꾸 커질 뿐입니다. 성색(聲色)의 본질은 공(空)입니다. 연기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하면 지금은 조금 손해 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인간의 마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공(空)하고 자연도 공(空)해, 이 공(空)을 찾는 것이 불교의 마음입니다. 중생사회에서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망심(妄心)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고 삽니다. 그래서 매우 바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지만 달릴수록 더 바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주마간산(走馬看山)처럼 허상을 보고 달리는 것뿐입니다. 허상을 보기 때문에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진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중심의 논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러고도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과학을 구실로 핑계만 댈니다. 자연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인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인재(人災)가 축적되면 천재(天災)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엄청난 재난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불교는 연기의 철학입니다. 우주 또한 인드라방입니다. 너는 너로 인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있는 것이고, 나 또한 너로 인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개의 사물, 즉 나무나 돌 등을 무정물로 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늘이요 부처요 보살입니다. 자연을 파괴한다면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면 언젠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미혹(迷惑)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참고 견디기 때

문에 수행이고 고행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생 자체가 수행입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하고 한걸음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실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절실성을 말합니다.

집은 초석(礎石)위에 지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은 진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공부도 뭐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점점 진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진실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때그때 방편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방편은 지혜와 맞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편이 지나치면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나뭇가지는 많지만 뿌리가 적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많이 따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나쁜지는 않지만, 유행 이전에 결타기로 나 자신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이 필연이지만 무명(無明)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진실해야 할 종교마저 근본을 잃어버리고 그때그때 방편만을...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쟁을 예로 든 천룡 스님은 "메아리는 소리로 그치게 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0>



부처님이 들려주는 처세술(2)

젊은이여, 사람은 자기 이름 석 자로만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어떤 회사의 직원, 누구의 선배 혹은 후배...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마련이요.

부모가 없다면 그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니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자식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모르겠소. 그대가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이요. 그대는 부모를 받들어 모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어 하오.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항상 부모에게 알려야 할 것이요, 부모가 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주어야 하오. 그리고 부모의 바른 명령을 어기지 말 것이요, 부모가 하던 바른 가업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오.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부모라면 자식이 익한 일을 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가르치고 타이르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식 사람이 뺏속까지 사루쳐야 하며, 자식에게 좋은 짝을 구해 주어야 하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대어주어야 하오.

또한 젊은이여, 만일 그대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예의를 갖추어서 아내를 대해야 하오. 그리고 위엄을 지킬 것이요, 아내에게 공평한 기색이 보이지 않도록 집안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아내가 임신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옷과 음식에 전적으로 집안일을 맡겨야 할 것이요.

만약 그대가 한 남자의 아내라면 다섯 가지 일을 명심해야 하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편보다 나중에 앉으며,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고 남편의 기색을 잘 살피며 먼저 그 속마음을 알아주어야 할 것이요. 친척들이 화목하게 어울리고 고루 잘 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힘을 낼 수 있소. 친척을 대할 때 다음의 일들을 기억해야 하오. 친척에게는 무조건 베풀어주고, 상냥한 말을 건네며, 이익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속이지 말아야 하오. 그리고 친척이 게을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친척의 단점을 일러줄 때도 남몰래 해야 하며, 절대로 친척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어야 하오.

젊은이여, 그대에게는 학교 은사이거나 집안 어른이거나 하는 웃어른이 계시는 것이요. 그럴 때 그대가 모시는 윗사람이 필요한 것을 대주어야 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며, 존중하고 우러러 받들어야 하며, 윗사람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고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만 하오.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윗사람이라면 법대로 아랫사람을 잘 길러주어야 하고, 아랫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아랫사람의 의문을 풀으며 시원스레 해답을 주어야 하고, 좋은 벗을 소개해주어야 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 가르쳐주어야 하오.

젊은이여, 그대는 분명 직장을 다니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게요.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분명 고용주나 직장상사가 있을 터이고 그대는 또 누군가의 상사이거나 선배일 것이요.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고용주거나 직장선배라면 다섯 가지 일을 기억할지 바라오. 아랫사람의 능력을 잘 살피서 그에 알맞게 일을 주어야 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때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며, 보수를

늦추거나 거르지 말고 제때에 줄 것이요, 고용인이나 직장 후배가 병이 나면 제때로 된 검진을 받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야 하며,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어야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만일 누군가의 고용인이거나 직장 후배라면 그대는 출근시간을 비롯한 모든 약속된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되며,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대 노동의 대가가 아니면 다른 몫을 바라지 말아야 하고, 일을 하되 조리 있고 순서에 맞추어 진행할 것이요, 그대의 고용주나 직장선배의 명을 위해주어야만 하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네 가지만은 기억해두기 바라오. 뜻밖의 인심으로 항상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고, 절대로 사나운 말을 건네지 말고 부드럽고 조리에 맞는 말을 건네며, 언제나 자기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한다면 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설혹 어려움이 쳐들더라도 그대의 편이 되어주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귀 기울여 준 그대에게 한없는 행복이 있기를 바라오. <장야함선생경> ■이미명(동국대학교 영역연구원)

사람은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베풀며 진실되게 살면 어려울때 도움주는 이 나타나

젊은이여, 사람은 자기 이름 석 자로만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어떤 회사의 직원, 누구의 선배 혹은 후배...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마련이요.

부모가 없다면 그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니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자식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모르겠소. 그대가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이요. 그대는 부모를 받들어 모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어 하오.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항상 부모에게 알려야 할 것이요, 부모가 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주어야 하오. 그리고 부모의 바른 명령을 어기지 말 것이요, 부모가 하던 바른 가업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오.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부모라면 자식이 익한 일을 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가르치고 타이르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식 사람이 뺏속까지 사루쳐야 하며, 자식에게 좋은 짝을 구해 주어야 하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대어주어야 하오.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방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의식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단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아보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재물보살법정연의식
- 제8장 재물보살
- 제9장 파불의식
- 제10장 점안편
- 제11장 이운편
- 제12장 수계편
- 제13장 고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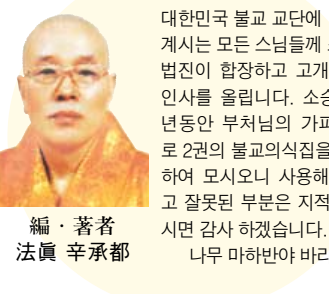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에 細節하게 집필한 의식집이 따로 참으로 고귀하고 원만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의식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속에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에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리안바 버리일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매장
- 제5장 埋葬
- 제6장 제49齋
- 제7장 삼주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 제8장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정 영성대제 괘불이은 건축소 영선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심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 제9장 기제사
- 제10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F: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